

중2-1
국어
미래엔(신)

2027 중2-1 국어 미래엔(신) | 1(2) 멍키 스페너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시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단원은 소설이 두 편이나 나오는데
시점이 너무 헷갈려서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시점 파악은 이 단원의 핵심 출제 요소란다. 먼저 「멍키 스페너」는 주
인공인 ‘나’가 자신의 경험과 심리를 직접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이야. 독자가 주인공의 속마음과 심리 변화를 아주 세밀하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지.



아, 그럼 만약 서술자가 동생인 ‘한아’로 바뀐다
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서술자가 ‘한아’로 바뀌면 동생의 시선에서 언니를
관찰하게 된단다. 그러면 독자는 언니의 진짜 의도나 숨겨진 속마음을
직접 알 수 없어서 스스로 상상하며 읽어야 해. 시험에서 언니의 내면 갈
등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식의 오답 선지가 자주 출제되니 꼭 기억해
두렴.



네, 명심할게요! 그리고 「멍키 스페너」에서 제
목이기도 한 ‘멍키 스페너’의 의미를 묻는 문제
도 출제될까요?

당연하지. ‘멍키 스페너’는 막힌 세면대를 고치기 위해 ‘나’가 빌려온 도
구잖아? 이 도구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게 되니까, 단순한 수리 도구를 넘어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성장의 도
구를 의미한단다.



그렇군요! 그럼 「천 개의 파랑」은 어떻게 공부
해야 할까요? 휴머노이드랑 말이 교감한다는 내
용이 좀 낯설고 어려워요.

「천 개의 파랑」은 서술자가 작품 밖 전지적 위치에서 인물들의 내면 심리와 생각을 모두 알려 주는 3인칭 전지적 시점이라는 걸 먼저 기억해야 해. 그리고 휴머니드인 콜리는 경주마 투데이의 고통에 공감하는 반면, 인간 매니저는 이들을 그저 빨리 뛰어야 하는 수단으로만 취급한다는 점을 비교해서 알아두어야 한단다.



아하, 기계인 콜리가 오히려 더 따뜻하게 공감하고 있네요! 매니저는 진짜 너무해요.

맞아. 바로 그 지점을 통해 과학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과 동물, 휴머니드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즉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을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된단다. 매니저처럼 생명의 고통을 외면하고 기록만 중시하는 태도는 진정한 공존을 방해한다는 점을 잘 정리해 두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네, 감사합니다!

중2-1
국어
미래엔(신)

2027 중2-1 국어 미래엔(신) | 1(2) 명키 스페너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 설명은 주석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빨간색 설명은 내신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문 분석

[팔자 늘어졌구나 싶었다. 엄마 없이 일주일 동안 **내**(이 글의 서술자이자 주인공, 시점에 대해 묻는 문제에 ‘작품 속 주인공이 자신의 경험과 내면 심리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와 ‘나’가 관찰자가 되어 주인공인 ‘한아’의 심리를 추측하여 전달한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나’가 주인공인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작품의 시점을 ‘한아’로 바꾸었을 때의 변화를 묻는 문제에 ‘동생의 시선에서 언니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서술하므로 독자가 언니의 의도나 숨겨진 생각을 스스로 상상하며 읽어야 한다.’, ‘언니가 “내일 고칠 거야.”라고 말한 까닭을 자세히 전달하기 어렵다.’라는 옳은 선지와 ‘독자는 ‘나(언니)’의 내면심리와 갈등을 더욱 직접적이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맘대로 살 수 있다니!]([]: 엄마가 집을 비운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나’가 자유로움을 느낌.) 다저녁때까지 교복도 안 벗고 소파에서 뒹굴대는 건 평소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게다가 나한테는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도 있다. 급한 일 있을 때 쓰라고 엄마가 주고 간 돈이다.

나중에 돈 생기면 사야지 했던 것들이 줄줄이 눈앞을 지나갔다. 앵두 빛깔 립밤과 고양이 핸드폰 케이스와 편의점 과자 몇 개. 뭔가 특이하고 맛있겠다 싶은 과자들은 값이 전부 3천 원이 넘었다. 하지만 이제 가격표 따위 거들떠보지 않아도 된다. 눈 돌아가게 비싼 과자를 아침저녁으로 사 먹어도 돈이 남을 판이다.

▶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뜬 ‘나’

“언니, 배고파.”

옆구리에 **혹**(동생 한아를 비유하는 말 → ‘나’는 한아를 자신이 챙겨 줘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귀찮아함. ‘동생을 자신이 돌봐야 할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나’의 초기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이 하나 붙어 있기는 했다. 나는 얼른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여덟 살쯤 됐으면 밥 정도는 혼자 차려 먹을 수 있는 나이다. [나는 그 나이 때 내 밥을 알아서 차려 먹은 건 물론이고 우는 아기한테 분유를 타 먹일 줄도 알았다. 내 아기도 아닌데 내가 우유병 물리고 놀아 주고 다 했다. 그런데 그때 그 갓난쟁이 김한아는 아직도 아기 취급 받으며 세상 편하게 살고 있다.]([]: ‘나’는 한아보다 비교적 성숙한 편이었음을 알 수 있음.)

“**한아 가스 불 못 켜게 하고, 칼 못 만지게 하고, 유리컵도 절대 주지 말고.**”(엄마는 한아를 아직 어린 아기로 생각하고, ‘나’가 한아를 돌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남.)

엄마는 현관문 나서는 순간까지 한아 걱정을 했다. 냉장고 안에도 한아가 좋아하는 밀반찬들을 짹 짹 채워 두었다. 다행히 한아는 밥투정이 없는 편이라 밀반찬에다 달걀이나 하나씩 부쳐 주면 군소리 없이 밥을 잘 먹긴 한다. 한아 발소리가 저만큼 멀어졌다. 내가 진짜로 자는 줄 알았나 보다.

▶ 엄마가 일주일간 집을 비운 사이 한아를 돌봐야 하는 ‘나’

줄줄줄줄줄.

오즘 누는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어서 그런지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똥 누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다행이야. 애써 느긋한 척하는데 한아가 끄응, 힘주는 소리를 냈다. 그래도 문 닫고 싸라는 말을 차마 못 했다. **그저께 화장실 전등불이 나갔기 때문이다.**(‘나’와 한아에게 발생한 문제 상황 ① - 화장실 전등불이 나감.) 엄마가 없는 줄 어떻게 알고 그날 밤 귀신같이 불이 나갔다. 화장실에는 창문이 없어서 낮에도 불을 안 켜면 뭐가

뭔지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니 어쩌겠나. 사실은 나도 화장실 문을 반쯤 열어 두고 볼일을 보는 중이다.**(문제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 - 수동적이고 소극적임.)

“언니이이이.”

한아가 또 나를 불렀다. 뒤를 길게 늘어 부른다는 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뜻이다. **계속 자는 척할까 하다 그냥 일어났다.**(‘나’가 한아를 귀찮아하면서도 돌보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동생에 대한 ‘나’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앞서 나온 ‘옆구리에 혹’이라는 단어나 ‘나’가 자는 척을 하려고 하는 행동 등에서는 동생을 귀찮아하고 동생을 아기로 취급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슬슬 배가 고파왔다.

“왜?”

화장실 앞에 서서 물었다. 한아가 세면대 앞에서 손을 어정쩡하게 들고 나를 돌아봤다. 세면대 안에는 비누 거품 동동 뜬 물이 넘칠 듯 차 있었다.

“물이 안 내려가.”

나는 한아한테 비키라 하고 뿌연 물속에 손을 담가 배수구 마개를 찾았다. 동전같이 생긴 마개를 누르면 배수구 구멍으로 마개가 썩 들어가 물이 안 빠지게 막아 주고, 다시 한번 누르면 도로 튀어 올라와 벌어진 틈새로 물이 빠지게 된다. 한아가 손을 씻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개를 누른 모양이다.

“언니가 저번에 알려 줬지?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물이…….”

물이 내려가지 않았다.(‘나’와 한아에게 발생한 문제 상황 ② - 세면대가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음. 연이어 문제 상황이 발생함. ‘나’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에 ‘엄마가 없는 사이 화장실 전등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마개가 구멍 안으로 썩 들어간 상태였다. 뭐지? 그럼 방금 전에 열려 있었다는 말인가? 마개를 다시 눌렀다. 마개가 위로 올라오면서 손끝으로 틈새가 만져졌다. 그런데 물이 조금도 내려가지 않았다.

“나도 해 봤어. 근데 안 돼.”

한아가 이마를 찡그렸다. 나는 한아가 손을 마저 행굴 수 있게 샤워기 물을 틀었다. 한아가 화장실 바닥에 쓰그러 앉아 손을 비벼 씻었다. **물이 안 들어오는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는 세면대라니! 일이 점점 더 꼬이고 있었다.**(‘나’와 한아의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 - 얽힌 데 덮치다, 설상가상(雪上加霜)) 엄마가 집에 오려면 아직 4일이나 남았다.

▶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생긴 문제들로 인해 당황한 ‘나’

일단 저녁밥을 먹기로 했다. 냉장고에서 감자조림과 시금치무침을 꺼내고 달걀을 두 개 부쳤다. 구운 김도 꺼내 포장지를 뜯었다. 한아가 식탁을 쓱 훑어보더니 장조림 담긴 통을 들고 왔다. 반찬 아껴 먹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할까 하다가 말았다.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에 ‘꼭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는 세면대를 뚫는 것’이라는 옳은 선지와 ‘화장실 전등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가 있다.

전등불이야 원래 오래 쓰면 저절로 나가고 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세면대는 갑자기 왜 저렇까 생각해 봤다. 요즘 들어 세면대 물 내려가는 속도가 좀 느리다 싶긴 했지만 이렇게 안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아가 반찬 집으려고 몸을 숙일 때마다 머리카락이 앞으로 쏟아졌다. 고무줄을 가져와 뒤통수 위에다 동그랗게 말아 묶어 주었다. **그러고 보니 어제오늘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았다. 내 머리도 감고 한아 머리도 감겼다.**(문제 상황의 원인. ‘나’와 한아가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은 것이 세면대가 막힌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함.) 화장실 문을 열어 놓고 샤워까지 하기는 좀 그래서 급한 대로 세면대에다 몸을 숙이고 샤워기 물을 틀어 머리만 대충 감고 지나갔다.

한아는 머리가 제법 길다. 엄마가 몇 번이나 잘라 주려고 하는 걸 내가 못 그러게 막았다. 한아도 이제 학교에 들어갔으니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된 셈이고, 그렇다면 뭐 한 가지라도 사람들 눈에 띄는 편이 낫다. 안 그러면 애들 속에 묻혀 이도 저도 아닌 인생 시작인데, 한아까지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한아의 긴 머리를 묶거나 땋거나 여기저기 핀을 꽂거나 알록달록 화려한 머리띠를 둘러 주고 있다.**(한아를 아끼고 잘 돌보는 ‘나’의 모습. ‘나’의 여러 행동 및 생각에 ㉠~㉢ 표시를 하고 ㉠~㉢ 중 동생에 대한 ‘나’의 태도

가 다른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앞서 ‘나’는 동생을 귀찮아했지만 이 구절은 동생이 밖에서 기죽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는 ‘나’의 애정과 배려가 담긴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는 집에서 엄청 관리하는 애라고 표시를 해 두는 것이다.

사실은 나도 머리가 길다. 그렇다고 한아처럼 남들 눈에 좀 띄어 보려는 수작은 절대 아니다. 우리 반만 해도 머리 짧은 애보다 긴 애가 훨씬 많으니까 애당초 이런 걸로 눈에 떨 수도 없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큰맘 먹고 머리를 짧게 자른 적이 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어떤 일에도 결코 호들갑 떨지 않고 상대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말을 내뱉는 머리 짧은 여자애가 있었다.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해였고, 나는 그런 애로 아이들 기억 속에 남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데 머리를 자르고 학교에 간 날, 아이들의 반응이 내 예상과 좀 달랐다. 표현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지만 결국은 다 같은 얘기였다.

[“자르지 말지. 너 얼굴 엄청 커 보여.”

애들이 돌아가며 하는 말들이 내 심장을 쿡쿡 찔렀다.

“진짜? 아이 씨, 어떡해. 이렇게 앞머리 내리면 어때? 아직도 커 보여? 썸 다시 보라고. 이래도 얼굴 커 보여?”

결국 나는 온갖 호들갑을 다 떨며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고, 그때 이후로 다시는 머리를 멍멍멍 자르지 않았다. 미용실에서 머리끝만 살짝 다듬고 집에 오면 엄마가 고만큼 자를 거 왜 비싼 돈 들여 미용실에 가느냐고 야단을 했지만 그 정도 구박에 흔들릴 내가 아니었다. 원래 호되게 겪은 일에서 얻은 교훈은 뼈에 새겨지는 법이다.]([]: 머리를 자르고 학교에 갔다가 ‘나’의 예상과 다른 친구들의 반응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게 됨. → 이 기억 때문에 ‘나’는 긴 머리를 유지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 자매는 둘 다 치렁치렁한 머리채를 휘날리며 사는 중이고, 엄마는 일 끝나고 집에 와 쉬다가도 두꺼운 테이프를 손바닥에 뒤집어 감고 방바닥이며 거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들을 짹짹 내곤 했다. **이노무 짹, 가시나들 짹, 머리를 다 짹짹, 밀어 버릴라 짹짹.**(엄마는 ‘나’와 한아의 긴 머리를 못마땅해함.)

[아무튼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는 이유는 우리 자매가 이토록 긴 머리를 세면대에 거꾸로 쏟아 놓고 샴푸를 짹짹 짜서 구석구석 비벼 감고 행구는 동안 배수구 구멍으로 빠져나간 머리카락들 때문이라고 짐작했다.]([]: 세면대가 막힌 원인을 짐작할 수 있음.) 그러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밥을 한 그릇 다 먹었는데도 적당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밥을 한 그릇 더 먹어 보기로 했다.**(문제 상황을 대하는 ‘나’의 행동 ① - ‘나’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 드러남.)

▶ 세면대가 막힌 원인을 ‘나’와 한아의 긴 머리카락 때문인 것으로 짐작하는 ‘나’

학교 갔다 집에 오는 길에 철물점에 들렀다.(문제 상황을 대하는 ‘나’의 행동 ② - 세면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물어보기 위해 직접 나섬.) **만년 철물점.**(세면대가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① - 만년 철물점을 찾아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행동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볼 때마다 가게 이름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년만년 철물점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뭘 그렇게까지 굳센 의지로 장사를 하나 싶었다.**(‘나’는 만년 철물점이라는 가게 이름을 부정적으로 생각함.)

“할머니.”

가게 안으로 들어가 주인 할머니를 불렀다. 만년 철물점은 경빈이 할머니네 가게다. 경빈이는 한아 어린이집 친구인데 한동안 할머니랑 살다가 학교 들어가면서 다시 엄마 집으로 갔다. **그 뒤로 할머니는 한아를 볼 때마다 경빈이 안 보고 싶냐고 물으면서 사랑도 주고 요구르트도 준다.**(한아를 보면 손주 경빈이가 생각나기 때문에)

“뭐 주랴?”

할머니가 구석에서 밥을 먹다 말고 나왔다. 점심을 먹기에는 늦은 시간이었다.

“아뇨. 뭐 사러 온 건 아니고…….”

교복 윗도리 주머니에 두 손을 밀어 넣었다. **뭘 사러 온 게 아니라서 괜히 눈치가 보였다.**(철물점에 무엇을 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세면대 문제 해결을 위해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방문한 것이라 눈치를 봄.)

“집에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서요.”

“물이 쭉쭉 내려가? 아니면 아예 안 내려가?”

“아예 안 내려가요.”

“그거는 저기다 물어봐야지.”

할머니가 길 건너 가게를 가리켰다. 한성 설비. 맨날 지나다니는 길인데 저런 가게가 있는 줄 처음 알았다. 세면대, 화장실, 싱크대, 막힌 건 뭐든 다 뚫어 주는 데라고 했다. 역시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 나는 엄마가 주고 간 돈을 좀 쓰더라도 세면대를 뚫기로 했다.

[“대충 얼마쯤 해요?”

비싸 봤자 얼마나 비싸겠느냐고 혈령하게 생각한 것 같다. 코앞에 있는 아파트에 와서 고작 머리카락 좀 빠 주는 일이었다.]([]: ‘나’가 세면대를 고치는 일을 가볍고 간단한 일로 생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음.) 그런데 할머니 말을 듣고 뒤로 넘어갈 뻔했다. 한성 설비 사장님은 이것저것 못 고치는 게 없는 기술자라서 어디든 한 번 방문 할 때마다 기본 출장비가 5만 원이라고 했다. 아직 출장비를 낸 것도 아닌데 피 같은 돈을 왕창 뜯긴 기분이 들었다. 누굴 호구로 아나? 얼굴을 찌푸리자 할머니가 대뜸 나무라는 소리를 했다.

“그 정도 값도 안 내고 사람을 부르려고? 비싼 물건들은 척척 사면서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 돈은 왜들 그렇게 아까워하는지.”

할머니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다. 돈이 많다면야 5만 원이든 얼마든 순순히 낼 수 있겠지만 내 형편이 그렇지가 않은 걸 어떡하나. **전 재산의 절반을 털어 세면대를 뚫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엄마가 집을 비우면서 주고 간 돈 중 절반을 수리비로 내는 건 큰돈을 지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할머니가 가게 밖까지 나를 따라 나왔다.

“그러면 관리 사무소에 한번 가 보든가. 원래 세면대까지는 안 봐 주는데 또 모르지, 말을 잘하면 봐 줄지도.”(할머니가 ‘나’에게 한성 설비에 가 보는 것 말고 다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줌.)

▶ ‘나’는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묻기 위해 철물점 할머니를 찾아가.

나는 한성 설비 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리고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한성 설비 사장님의 기본 출장비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관리 사무소에 가서 말을 잘하면 세면대를 봐 줄 수도 있을 거라는 할머니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한성 설비에 가지 않음.)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는 한 번도 가 본 적 없다. 가끔 거실 벽에 붙어 있는 스피커로 “관리 사무소에서 알려 드립니다.” 어찌고저찌고하는 방송을 들어서 귀에 익숙하기는 한데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나’가 할머니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한 번도 관리 사무소에 관심을 두었던 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남.)

“있다!”

혹시나 해서 아파트 입구에 있는 안내판을 훑어보는 중이었다. 이쪽으로 가면 302동, 저쪽으로 가면 305동, 방향을 알려 주는 화살표 모양 안내판에서 관리 사무소 팻말을 찾아냈다. 관리 사무소는 아파트 후문 쪽으로 가라고 돼 있었다.

할머니 말대로 또 모르는 일이었다.(관리 사무소에서 세면대를 고쳐 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나’) [나는 원래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듣기 좋은 말 몇 마디로 은근슬쩍 남의 돈을 떼어먹으려 들다니, 한두 푼도 아니고 자그마치 천 냥씩이나!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양심상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가 원래는 말로 남의 도움을 받으려는 태도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남.)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에 대한 ‘나’의 생각을 묻는 문제에 “나’는 이 속담이 양심을 속이고 남의 돈을 떼어먹는 핑계로 쓰일 수 있어 평소 이 속담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엄마도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경우가 좀 다르다. 뻔뻔스럽게 빚을 다 없애 달라는 게 아니라 그저 막힌 세면대를 좀 봐 달라는 거니까 그 정도는 서로 돕고 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관리 사무소가 보이지 않았다. 후문 앞까지 왔는데도 노인정 말고는 다른 건물이 없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둘러봤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계단이 있었다. 노인정 한쪽 벽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다. 고개를 길게 빼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계단 밑 유리문 위에 붉은 글자가

보였다. 찾았다, **관리 사무소**.(세면대가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② -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아감.)

문을 밀고 들어가니, 회색 점퍼를 입은 아저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무슨 일로 왔니?”

아저씨가 물었다.

“저희 집에 뭐가 고장 나세요.”

나는 사실대로 얘기할 참이었다. 세면대가요, 어제부터 물이 안 내려가서요.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장 났어? 뭐가?”

사실대로 말을 하되 아주 약간만 가여운 척하려고 했다.(‘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저희 엄마가요, 지금 어디 가서서 집에 저랑 동생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며칠 동안 계속 씻지를 못해서요.

아저씨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몇 동 몇 호인데?”

나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엄마의 당부가 떠오르면서 ‘나’는 당황함.) [엄마는 나를 붙잡고 여러 번 얘기했다. 집에 오면 보조 걸쇠까지 다 잠그고 있으라고, 누가 와서 벨을 눌러도 문 열어 주지 말라고, “누구세요?” 묻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어디 가서 집에 엄마 없다는 말 절대 하지 말라고.]([] : 아이들만 있을 때를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이 드러남.)

“집에 어른 안 계셔? 왜 학생이 왔어?”

아저씨가 또 물었다.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세면대를 고치려면 처음 보는 아저씨가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집에는 나와 한아밖에 없다는 사실을.]([] : ‘나’가 관리 사무소 아저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돌아온 까닭이 드러남.)

“엄마 밖에 계세요. 엄마랑 같이 올게요.”(‘나’가 당황하여 거짓말을 함.)

나는 유리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세면대를 고치려면 처음 보는 아저씨가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엄마가 나에게 당부한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 [그리고 길을 빙빙 돌아 집으로 갔다. 누가 뒤따라오지 않는지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진짜로 누가 있을까 봐 가슴이 쿵쿵 뛰었다.]([] : 누군가가 뒤따라올까 봐 불안해함.)

▶ 관리 사무소에 찾아가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나’

외숙모가 전화를 했다. 한아 데리고 집에 와서 저녁 먹으라고 했다. 한아를 흔들어 깨웠다. 방에서 혼자 노는 줄 알았는데 그새 잠이 들었다. 한아는 잘 때 깨워도 칭얼대지 않는다.

버스 두 정거장 거리를 걸어서 갔다. 버스 카드 안에 남은 돈이 간당간당했고 별로 멀지도 않았다. 외숙모는 저번보다 몸이 더 불어 있었다. 아기 낳을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땠는지 옆에서 다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데 외숙모 배를 보니 와, 장난 아니구나 싶었다. 외숙모는 손발도 통통 붓고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휘우 숨을 몰아쉬었다. **밥 차려 먹기 귀찮아서 온 건데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 ‘나’의 어른스러운 성격을 드러내는 ‘나’의 행동과 말. 외숙모에게 집에 생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에서 ‘나’의 어른스러운 성격을 알 수 있음.)

한아는 김치찌개 안에 있는 콩치를 세 토막이나 먹었다. 밀반찬만 놓고 밥을 먹다가 찌개가 있으니 좋은 모양이었다. 나도 찌개 국물에 밥을 자작자작 비벼 한 그릇을 다 비웠다.

“집에 별일 없니?”

외숙모가 냄비에 남은 김치찌개를 통에 담아 주며 물었다. **한아가 내 얼굴을 올려다봤다. 화장실 불이 안 들어오고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간다는 얘기를 해도 되는지 눈으로 묻고 있었다.**(한아는 외숙모에게 도움을 청해 화장실 전등불 문제와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함.) 나는 한아를 보며 고개를 슬쩍 내저었다. 우리도 엄마 없이 지내고 있지만 외숙모도 외삼촌 없이 혼자 버티는 중이었다. **엄마랑 외삼촌은 일 때문에 광주까지 트럭을 끌고 내려갔고, 일을 마칠 때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나’가 엄마 없이 지내야 하는 까닭. 엄마가 외삼

촌과 지방에 일을 하러 감.)

“아무 일 없어요.”(임신 중인 외숙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집에 생긴 문제를 알리지 않음. 아무 일 없다는 말에 드러나는 ‘나’의 성격을 묻는 문제에 ‘자신의 힘든 사정보다 상대방의 처지를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속 깊은 면모가 있다.’라는 좋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소풍이도 아빠 올 때까지 잘 있다 나올 거지?”

외숙모가 부른 배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소풍이는 외숙모 뱃속에 있는 아기의 별명이다. 세상에 소풍 오듯이 즐겁게 오라고 외삼촌이 지어 줬다고 했다. 외삼촌은 우리 생일 카드에도 가끔 멋진 말을 써 주곤 한다.

“소풍아, 잘 있어.”

한아가 손으로 외숙모 배를 쓰다듬으며 인사했다.

집에 오다 편의점에 들렀다. 차비를 아꼈으니 과자 한 봉지씩은 사 먹어도 될 것 같았다. 엄마가 주고 간 돈이 아직 그대로 있었다. **이참에 돈을 ping ping 써 봐야지 했는데 막상 돈을 쓰려고 하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 망설여졌다.**(‘나’의 알뜰한 성격이 드러남.)

“먹고 싶은 거 골라.”

한아가 신이 나서 진열대 쪽으로 뛰어가더니 금방 과자를 한 봉지 들고 왔다. 맨날 먹던 과자였다. 나는 그 과자를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 진열대 위쪽에서 비싼 과자를 골라 한아 손에 쥐여 줬다. 그리고 나도 한 번도 안 먹어 본 과자를 집어 들고 계산대로 가서 만 원짜리를 내밀었다. 우리는 진짜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정도 과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 먹는 애들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 만삭인 외숙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나’

중2-1
국어
미래엔(신)

2027 중2-1 국어 미래엔(신) | 1(2) 명키 스페너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 팔자 늘어졌구나 싶었다. 엄마 없이 일주일 동안 **내**(이 글의 _____ 이자 _____ 시점에 대해 묻는 문제에 ‘작품 속 주인공이 자신의 _____ 과 _____ 를 직접 _____ 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와 “**나**가 관찰자가 되어 주인공인 ‘한아’의 심리를 추측하여 전달한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나**’가 주인공인 _____ 시점을 취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작품의 시점을 ‘한아’로 바꾸었을 때의 변화를 묻는 문제에 ‘동생의 시선에서 언니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서술하므로 독자가 언니의 의도나 숨겨진 생각을 스스로 상상하며 읽어야 한다.’, ‘언니가 “내일 고칠 거야.”라고 말한 까닭을 자세히 전달하기 어렵다.’라는 _____ 선지와 ‘독자는 ‘나(언니)’의 내면 심리와 갈등을 더욱 직접적이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라는 _____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맘대로 살 수 있다니!]([] : 엄마가 집을 비운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나’가 _____ 을 느낌.) 다저녁때까지 교복도 안 벗고 소파에서 뒹굴대는 건 평소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게다가 나한테는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도 있다. 급한 일 있을 때 쓰라고 엄마가 주고 간 돈이다.

나중에 돈 생기면 사야지 했던 것들이 줄줄이 눈앞을 지나갔다. 앵두 빗깔 립밤과 고양이 핸드폰 케이스와 편의점 과자 몇 개. 뭔가 특이하고 맛있겠다 싶은 과자들은 값이 전부 3천 원이 넘었다. 하지만 이제 가격표 따위 거들떠보지 않아도 된다. 눈 돌아가게 비싼 과자를 아침저녁으로 사 먹어도 돈이 남을 판이다.

▶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뜬 ‘나’

“언니, 배고파.”

옆구리에 **훅**(동생 _____ 를 _____ 하는 말 → ‘나’는 한아를 자신이 챙겨 줘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_____ 함. ‘동생을 자신이 돌봐야 할 _____ 존재로 여기는 ‘나’의 초기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이 하나 붙어 있기는 했다. 나는 얼른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여덟 살쯤 됐으면 밥 정도는 혼자 차려 먹을 수 있는 나이다. [나는 그 나이 때 내 밥을 알아서 차려 먹은 건 물론이고 우는 아기한테 분유를 타 먹일 줄도 알았다. 내 아기도 아닌데 내가 우유병 물리고 놀아 주고 다 했다. 그런데 그때 그 갓난쟁이 김한아는 아직도 아기 취급 받으며 세상 편하게 살고 있다.]([] : ‘나’는 한아보다 비교적 성숙한 편이었음을 알 수 있음.)

“**한아 가스 불 못 켜게 하고, 칼 못 만지게 하고, 유리컵도 절대 주지 말고.**”(엄마는 한아를 아직 어린 _____ 로 생각하고, ‘나’가 한아를 돌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남.)

엄마는 현관문 나서는 순간까지 한아 걱정을 했다. 냉장고 안에도 한아가 좋아하는 밀반찬들을 짹 짹 채워 두었다. 다행히 한아는 밥투정이 없는 편이라 밀반찬에다 달걀이나 하나씩 부쳐 주면 군소리 없이 밥을 잘 먹긴 한다. 한아 발소리가 저만큼 멀어졌다. 내가 진짜로 자는 줄 알았나 보다.

▶ 엄마가 일주일간 집을 비운 사이 _____ 를 돌봐야 하는 ‘나’

줄줄줄줄.

오줌 누는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어서 그런지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똥 누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다행이야. 애써 느긋한 척하는데 한아가 끄응, 힘주는 소리를 냈다. 그래도 문 닫고 싸라는 말을 차마 못 했다. **그저께 화장실 전등불이 나갔기 때문이다.**(‘나’와 한아에게 발생한 문제 상황 ① - _____ 이 나감.) 엄마가 없는 줄 어떻게 알고 그날 밤 귀신같이 불이 나갔다. 화장실에는 창문이 없어서 낮에도 불을 안 켜면 뭐가 뭔지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니 어쩌겠나. 사실은 나도 화장실 문을 반쯤 열어 두고 불일을 보는 중이다.**(문제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 - _____ 적이고 _____ 적임.)

“언니이이이.”

한아가 또 나를 불렀다. 뒤를 길게 늘어 부른다는 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뜻이다. **계속 자**

는 **척할까 하다 그냥 일어났다.**(‘나’가 한아를 _____ 하면서도 돌보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동생에 대한 ‘나’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앞서 나온 ‘옆구리에 혹’이라는 단어나 ‘나’가 자는 척을 하려고 하는 행동 등에서는 동생을 _____ 하고 동생을 _____로 취급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슬슬 배가 고파왔다.

“왜?”

화장실 앞에 서서 물었다. 한아가 세면대 앞에서 손을 어정쩡하게 들고 나를 돌아봤다. 세면대 안에는 비누 거품 똥똥 뜬 물이 넘칠 듯 차 있었다.

“물이 안 내려가.”

나는 한아한테 비키라 하고 뿌연 물속에 손을 담가 배수구 마개를 찾았다. 동전같이 생긴 마개를 누르면 배수구 구멍으로 마개가 쏙 들어가 물이 안 빠지게 막아 주고, 다시 한번 누르면 도로 튀어 올라와 벌어진 틈새로 물이 빠지게 된다. 한아가 손을 씻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개를 누른 모양이다.

“언니가 저번에 알려 줬지?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물이…….”

물이 내려가지 않았다.(‘나’와 한아에게 발생한 문제 상황 ② - _____가 _____서 _____이 내려가지 않음. 연이어 문제 상황이 발생함. ‘나’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에 ‘엄마가 없는 사이 화장실 전등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마개가 구멍 안으로 쏙 들어간 상태였다. 뭐지? 그럼 방금 전에 열려 있었다는 말인가? 마개를 다시 눌렀다. 마개가 위로 올라오면서 손끝으로 틈새가 만져졌다. 그런데 물이 조금도 내려가지 않았다.

“나도 해 봤어. 근데 안 돼.”

한아가 이마를 찡그렸다. 나는 한아가 손을 마저 헹굴 수 있게 샤워기 물을 틀었다. 한아가 화장실 바닥에 찌그러 앉아 손을 비벼 씻었다. **물이 안 들어오는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는 세면대라니! 일이 점점 더 꼬이고 있었다.**(‘나’와 한아의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 - 얽힌 데 덮치다, _____ (雪上加霜)) 엄마가 집에 오려면 아직 4일이나 남았다.

▶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생긴 _____들로 인해 당황한 ‘나’

일단 저녁밥을 먹기로 했다. 냉장고에서 감자조림과 시금치무침을 꺼내고 달걀을 두 개 부쳤다. 구운 김도 꺼내 포장지를 뜯었다. 한아가 식탁을 쓱 훑어보더니 장조림 담긴 통을 들고 왔다. 반찬 아껴 먹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할까 하다가 말았다.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에 ‘꼭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는 세면대를 뚫는 것’이라는 _____ 선지와 ‘화장실 전등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라는 _____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가 있다.

전등불이야 원래 오래 쓰면 저절로 나가고 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세면대는 갑자기 왜 저렇까 생각해 봤다. 요즘 들어 세면대 물 내려가는 속도가 좀 느리다 싶긴 했지만 이렇게 안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아가 반찬 집으려고 몸을 숙일 때마다 머리카락이 앞으로 쏟아졌다. 고무줄을 가져와 뒤통수 위에다 동그랗게 말아 묶어 주었다. **그리고 보니 어제오늘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았다. 내 머리도 감고 한아 머리도 감겼다.**(문제 상황의 _____, ‘나’와 한아가 _____ 것이 세면대가 막힌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함.) 화장실 문을 열어 놓고 샤워까지 하기는 좀 그래서 급한 대로 세면대에다 몸을 숙이고 샤워기 물을 틀어 머리만 대충 감고 지나갔다.

한아는 머리가 제법 길다. 엄마가 몇 번이나 잘라 주려고 하는 걸 내가 못 그렇게 막았다. 한아도 이제 학교에 들어갔으니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된 셈이고, 그렇다면 뭐 한 가지라도 사람들 눈에 띄는 편이 낫다. 안 그러면 애들 속에 묻혀 이도 저도 아닌 인생 시작인데, 한아까지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한아의 긴 머리를 묶거나 땀겨나 여기저기 핀을 꽃거나 알록달록 화려한 머리띠를 둘러 주고 있다.**(한아를 _____고 잘 _____는 ‘나’의 모습. ‘나’의 여러 행동 및 생각에 ㉠~㉣ 표시를 하고 ㉠~㉣ 중 동생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다른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앞서 ‘나’는 동생을 귀찮아했지만 이 구절은 동생이 밖에서 기죽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는 ‘나’의 _____과 _____가 담긴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는 집에서 엄청 관리하는 애라고 표시를 해 두는 것이다.

사실은 나도 머리가 길다. 그렇다고 한아처럼 남들 눈에 좀 띄어 보려는 수작은 절대 아니다. 우리 반만 해

도 머리 짧은 애보다 긴 애가 훨씬 많으니까 애당초 이런 걸로 눈에 띌 수도 없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큰맘 먹고 머리를 짧게 자른 적이 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어떤 일에도 결코 호들갑 떨지 않고 상대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말을 내뱉는 머리 짧은 여자가 있었다.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해였고, 나는 그런 애로 아이들 기억 속에 남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데 머리를 자르고 학교에 간 날, 아이들의 반응이 내 예상과 좀 달랐다. 표현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지만 결국은 다 같은 얘기였다.

[“자르지 말지. 너 얼굴 엄청 커 보여.”

애들이 돌아가며 하는 말들이 내 심장을 쿡쿡 찔렀다.

“진짜? 아이 씨, 어떡해. 이렇게 앞머리 내리면 어때? 아직도 커 보여? 쯤 다시 보라고. 이래도 얼굴 커 보여?”

결국 나는 온갖 호들갑을 다 떨며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고, 그때 이후로 다시는 머리를 멍텅멍텅 자르지 않았다. 미용실에서 머리끝만 살짝 다듬고 집에 오면 엄마가 고만큰 자를 거 왜 비싼 돈 들여 미용실에 가느냐고 야단을 했지만 그 정도 구박에 흔들릴 내가 아니었다. 원래 호되게 겪은 일에서 얻은 교훈은 뼈에 새겨지는 법이다.]([]: 머리를 자르고 학교에 갔다가 ‘나’의 예상과 다른 친구들의 반응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게 됨. → 이 기억 때문에 ‘나’는 긴 머리를 유지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 자매는 둘 다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사는 중이고, 엄마는 일 끝나고 집에 와 쉬다가도 두꺼운 테이프를 손바닥에 뒤집어 감고 방바닥이며 거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들을 짹짹 짹 내곤 했다. **이노무 짹, 가시나들 짹, 머리를 다 짹짹, 밀어 버릴라 짹짹.**(엄마는 ‘나’와 한아의 긴 머리를 못마땅해함.)

[아무튼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는 이유는 우리 자매가 이토록 긴 머리를 세면대에 거꾸로 쏟아 놓고 샴푸를 짹짹 짜서 구석구석 비벼 감고 행구는 동안 배수구 구멍으로 빠져나간 머리카락들 때문이라고 짐작했다.]([]: 세면대가 막힌 ___을 짐작할 수 있음.) 그러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밥을 한 그릇 다 먹었는데도 적당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밥을 한 그릇 더 먹어 보기로 했다.**(문제 상황을 대하는 ‘나’의 행동 ① - ‘나’의 ___적이고 ___적인 성격이 드러남.)

▶ 세면대가 막힌 ___을 ‘나’와 한아의 ___ 때문인 것으로 짐작하는 ‘나’

학교 갔다 집에 오는 길에 철물점에 들렀다.(문제 상황을 대하는 ‘나’의 행동 ② - 세면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___보기 위해 직접 나섬.) **만년 철물점.**(세면대가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___ ① - 만년 철물점을 찾아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행동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볼 때마다 가게 이름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년만년 철물점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뭘 그렇게까지 굳센 의지로 장사를 하나 싶었다.**(‘나’는 만년 철물점이라는 가게 이름을 ___적으로 생각함.)

“할머니.”

가게 안으로 들어가 주인 할머니를 불렀다. 만년 철물점은 경빈이 할머니네 가게다. 경빈이는 한아 어린이 집 친구인데 한동안 할머니랑 살다가 학교 들어가면서 다시 엄마 집으로 갔다. **그 뒤로 할머니는 한아를 볼 때마다 경빈이 안 보고 싶냐고 물으면서 사랑도 주고 요구르트도 준다.**(한아를 보면 손주 경빈이가 생각나기 때문에)

“뭐 주라?”

할머니가 구석에서 밥을 먹다 말고 나왔다. 점심을 먹기에는 늦은 시간이었다.

“아뇨. 뭐 사러 온 건 아니고…….”

교복 윗도리 주머니에 두 손을 밀어 넣었다. **뭘 사러 온 게 아니라서 괜히 눈치가 보였다.**(철물점에 무엇을 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세면대 문제 해결을 위해 할머니에게 ___을 받으려고 방문한 것이라 눈치를 봄.)

“집에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서요.”

“물이 쭈쭈쭈 내려가? 아니면 아예 안 내려가?”

“아예 안 내려가요.”

“그거는 저기다 물어보아야지.”

할머니가 길 건너 가게를 가리켰다. 한성 설비. 맨날 지나다니는 길인데 저런 가게가 있는 줄 처음 알았다.

세면대, 화장실, 싱크대, 막힌 건 뭐든 다 뚫어 주는 데라고 했다. 역시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 나는 엄마가 주고 간 돈을 좀 쓰더라도 세면대를 뚫기로 했다.

[“대충 얼마쯤 해요?”

비싸 봤자 얼마나 비싸겠느냐고 혈령하게 생각한 것 같다. 코앞에 있는 아파트에 와서 고작 머리카락 좀 빼 주는 일이었다.]([: ‘나’가 세면대를 고치는 일을 ____고 ____한 일로 생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음.) 그런데 할머니 말을 듣고 뒤로 넘어갈 뻔했다. 한성 설비 사장님은 이것저것 못 고치는 게 없는 기술자라서 어디든 한 번 방문할 때마다 기본 출장비가 5만 원이라고 했다. 아직 출장비를 낸 것도 아닌데 피 같은 돈을 왕창 뜯긴 기분이 들었다. 누굴 호구로 아나? 얼굴을 찌푸리자 할머니가 대뜸 나무라는 소리를 했다.

“그 정도 값도 안 내고 사람을 부르려고? 비싼 물건들은 척척 사면서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 돈은 왜들 그렇게 아까워하는지.”

할머니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다. 돈이 많다면야 5만 원이든 얼마든 순순히 낼 수 있겠지만 내 형편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떡하나. **전 재산의 절반을 털어 세면대를 뚫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엄마가 집을 비우면서 주고 간 돈 중 절반을 수리비로 내는 건 큰돈을 지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할머니가 가게 밖까지 나를 따라 나왔다.

“그러면 관리 사무소에 한번 가 보든가. 원래 세면대까지는 안 봐 주는데 또 모르지, 말을 잘하면 봐 줄지도.”(할머니가 ‘나’에게 한성 설비에 가 보는 것 말고 다른 _____을 제시해 줌.)

▶ ‘나’는 세면대 문제를 ____하기 위한 ____을 묻기 위해 _____를 찾아감.

나는 한성 설비 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리고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한성 설비 사장님의 기본 출장비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관리 사무소에 가서 말을 잘하면 세면대를 봐 줄 수도 있을 거라는 할머니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한성 설비에 가지 않음.)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는 한 번도 가 본 적 없다. 가끔 거실 벽에 붙어 있는 스피커로 “관리 사무소에서 알려 드립니다.” 어찌고저찌고하는 방송을 들어서 귀에 익숙하기는 한데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나’가 할머니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한 번도 관리 사무소에 관심을 두었던 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남.)

“있다!”

혹시나 해서 아파트 입구에 있는 안내판을 훑어보는 중이었다. 이쪽으로 가면 302동, 저쪽으로 가면 305동, 방향을 알려 주는 화살표 모양 안내판에서 관리 사무소 팻말을 찾아냈다. 관리 사무소는 아파트 후문 쪽으로 가라고 돼 있었다.

할머니 말대로 또 모르는 일이었다.(관리 사무소에서 세면대를 고쳐 줄지도 모른다고 ____하는 ‘나’) [나는 원래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듣기 좋은 말 몇 마디로 은근슬쩍 남의 돈을 떼어먹으려 들다니, 한두 푼도 아니고 자그마치 천 냥씩이나!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양심상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가 원래는 말로 남의 도움을 받으려는 태도에 대해 ____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남.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에 대한 ‘나’의 생각을 묻는 문제에 “나’는 이 속담이 양심을 속이고 남의 돈을 떼어먹는 핑계로 쓰일 수 있어 평소 이 속담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____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엄마도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경우가 좀 다르다. 뻔뻔스럽게 빚을 다 없애 달라는 게 아니라 그저 막힌 세면대를 좀 봐 달라는 거니까 그 정도는 서로 돕고 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관리 사무소가 보이지 않았다. 후문 앞까지 왔는데도 노인정 말고는 다른 건물이 없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둘러봤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계단이 있었다. 노인정 한쪽 벽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다. 고개를 길게 빼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계단 밑 유리문 위에 붉은 글자가 보였다. 찾았다, **관리 사무소.**(세면대가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____ ② -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아감.)

문을 밀고 들어가니, 회색 점퍼를 입은 아저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무슨 일로 왔니?”

아저씨가 물었다.

“저희 집에 뭐가 고장 나세요.”

나는 사실대로 얘기할 참이었다. 세면대가요, 어제부터 물이 안 내려가서요.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장 났어? 뭐가?”

사실대로 말을 하되 아주 약간만 가여운 척하려고 했다.(‘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요, 지금 어디 가서서 집에 저랑 동생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며칠 동안 계속 씻지를 못해서요.

아저씨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몇 동 몇 호인데?”

나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엄마의 _____가 떠오르면서 ‘나’는 당황함.) [엄마는 나를 붙잡고 여러 번 얘기했다. 집에 오면 보조 걸쇠까지 다 잠그고 있으라고, 누가 와서 벨을 눌러도 문 열어 주지 말라고, “누구세요?” 묻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어디 가서 집에 엄마 없다는 말 절대 하지 말라고.]([]: 아이들만 있을 때를 _____하는 엄마의 마음이 드러남.)

“집에 어른 안 계셔? 왜 학생이 왔어?”

아저씨가 또 물었다.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세면대를 고치려면 처음 보는 아저씨가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집에는 나와 한아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가 관리 사무소 아저씨의 _____을 받지 않고 그냥 _____ 까닭이 드러남.)

“엄마 밖에 계세요. 엄마랑 같이 올게요.”(‘나’가 _____하여 _____을 함.)

나는 유리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세면대를 고치려면 처음 보는 아저씨가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엄마가 나에게 _____한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 [그리고 길을 빙빙 돌아 집으로 갔다. 누가 뒤따라오지 않는지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진짜로 누가 있을까 봐 가슴이 쿵쿵 뛰었다.]([]: 누군가가 뒤따라올까 봐 _____해함.)

▶ 관리 사무소에 찾아갔지만 _____을 _____하지 못한 ‘나’

외숙모가 전화를 했다. 한아 데리고 집에 와서 저녁 먹으라고 했다. 한아를 흔들어 깨웠다. 방에서 혼자 노는 줄 알았는데 그새 잠이 들었다. 한아는 잘 때 깨워도 칭얼대지 않는다.

버스 두 정거장 거리를 걸어서 갔다. 버스 카드 안에 남은 돈이 간당간당했고 별로 멀지도 않았다. 외숙모는 저번보다 몸이 더 불어 있었다. 아기 낳을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땠는지 옆에서 다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데 외숙모 배를 보니 와, 장난 아니구나 싶었다. 외숙모는 손발도 통통 붓고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휘유 숨을 몰아쉬었다. **밥 차려 먹기 귀찮아서 온 건데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의 _____성격을 드러내는 ‘나’의 행동과 말. 외숙모에게 집에 생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에서 ‘나’의 _____성격을 알 수 있음.)

한아는 김치찌개 안에 있는 콩치를 세 토막이나 먹었다. 밀반찬만 놓고 밥을 먹다가 찌개가 있으니 좋은 모양이었다. 나도 찌개 국물에 밥을 자작자작 비벼 한 그릇을 다 비웠다.

“집에 별일 없니?”

외숙모가 냄비에 남은 김치찌개를 통에 담아 주며 물었다. **한아가 내 얼굴을 올려다봤다. 화장실 불이 안 들어오고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간다는 얘기를 해도 되는지 눈으로 묻고 있었다.**(_____는 _____에게 _____을 청해 _____문제와 _____문제를 _____하고 싶어 함.) **나는 한아를 보며 고개를 슬쩍 내저었다.** 우리도 엄마 없이 지내고 있지만 외숙모도 외삼촌 없이 혼자 버티는 중이었다. **엄마랑 외삼촌은 일 때문에 광주까지 트럭을 끌고 내려갔고, 일을 마칠 때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나’가 엄마 없이 지내야 하는 까닭. 엄마가 외삼촌과 지방에 일을 하러 감.)

“아무 일 없어요.”(_____중인 외숙모가 _____하지 않도록 집에 생긴 _____를 알리지 않음. 아무 일 없다는 말에 드러나는 ‘나’의 성격을 묻는 문제에 ‘자신의 힘든 사정보다 상대방의 처지를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속 깊은 면모가 있다.’라는 _____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소풍이도 아빠 올 때까지 잘 있다 나올 거지?”

외숙모가 부른 배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소풍이는 외숙모 뱃속에 있는 아기의 별명이다. 세상에 소풍 오듯이 즐겁게 오라고 외삼촌이 지어 줬다고 했다. 외삼촌은 우리 생일 카드에도 가끔 멋진 말을 써 주곤 한다.

“소풍아, 잘 있어.”

한아가 손으로 외숙모 배를 쓰다듬으며 인사했다.

집에 오다 편의점에 들렀다. 차비를 아꼈으니 과자 한 봉지씩은 사 먹어도 될 것 같았다. 엄마가 주고 간 돈이 아직 그대로 있었다. **이참에 돈을 ping ping 써 봐야지 했는데 막상 돈을 쓰려고 하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 망설여졌다.**(‘나’의 ____한 성격이 드러남.)

“먹고 싶은 거 골라.”

한아가 신이 나서 진열대 쪽으로 뛰어가더니 금방 과자를 한 봉지 들고 왔다. 맨날 먹던 과자였다. 나는 그 과자를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 진열대 위쪽에서 비싼 과자를 골라 한아 손에 쥐여 줬다. 그리고 나도 한 번도 안 먹어 본 과자를 집어 들고 계산대로 가서 만 원짜리를 내밀었다. 우리는 진짜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정도 과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 먹는 애들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 만삭인 외숙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____을 ____하지 않은 ‘나’

중2-1
국어
미래엔(신)

2027 중2-1 국어 미래엔(신) | 1(2) 명키 스페너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제재 정리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격	사실적, 고백적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제재	명키 스페너
주제	화장실 세면대가 막히고 전등불이 나간 문제를 해결한 경험과 이를 통한 성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인물의 심리 변화가 세밀하게 드러남.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물의 성장이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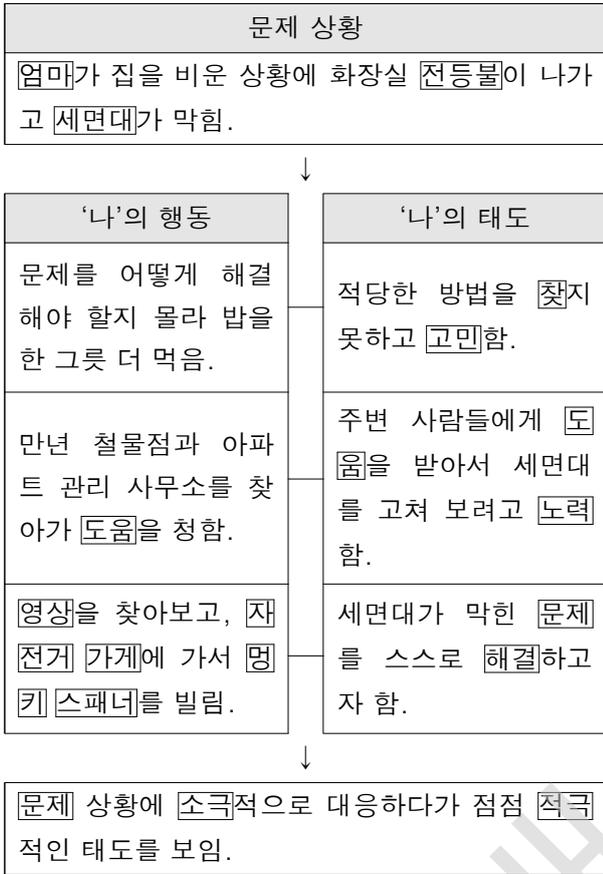
2. 글의 짜임

발단	엄마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화장실 전등 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세면대가 막힌 원인이 머리를 감을 때 빠진 머리카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찻물점,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 보면서 세면대를 뚫기 위해 노력함. '나'는 외숙모 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으나 외숙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음.
위기	근심에 찬 동생을 보고 '나'가 세면대를 스스로 고치기로 마음먹고, 동영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본 후 자전거 가게에서 명키 스페너를 빌림.
절정	'나'는 명키 스페너를 이용하여 세면대를 뚫음.
결말	명키 스페너를 잡았던 손을 보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자신에게 뿌듯함을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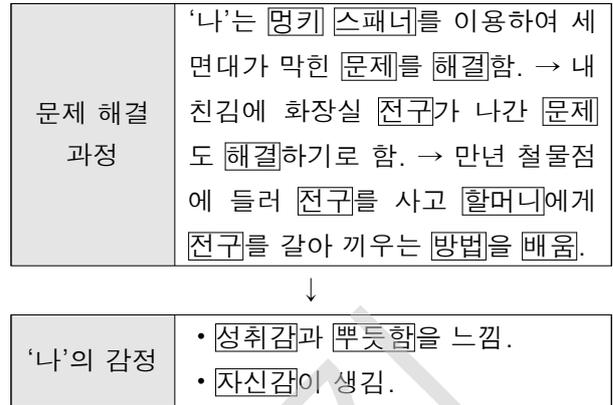
3. 행동과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나'의 성격

'나'의 행동과 말	'나'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밥 차려 먹기 귀찮아서 온 건데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한아를 보며 고개를 슬쩍 내저었다. "아무 일 없어요." 	외숙모에게 집에 생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에서 '나'의 어른스러운 성격을 알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면대를 뚫는 방법을 찾기 위해 동영상을 20개쯤 찾아봄. 동영상을 다섯 번쯤 돌려 봐서 작업 순서를 저절로 외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꼼꼼하고 치밀함. 준비성이 철저함. 책임감이 강함.
배수관에서 지저분한 것이 나오고 냄새가 나자 한아에게 나가 있으라고 함.	동생을 챙기고 배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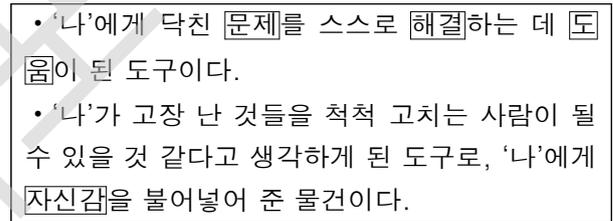
4. 문제 상황을 대하는 '나'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



5. 세면대가 막힌 문제를 해결한 뒤 '나'의 감정



6. '나'에게 '멍키 스패너'의 의미



TEST 1단계

1. 제재 정리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격	사□적, 고□적
시점	□인칭 주□공 시점
제재	멍키 스페너
주제	화□실 세□대가 막히고 전□불이 나간 문□를 해□한 경□과 이를 통한 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칭 주□공 시점으로 인물의 심□ 변□가 세밀하게 드러남. 문□ 상황을 스스로 해□하는 과정에서 인물의 성□이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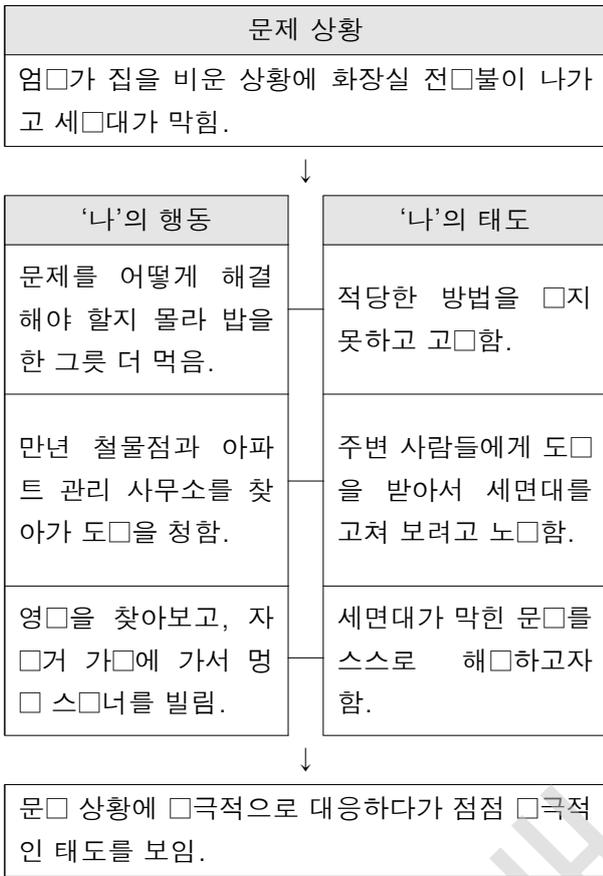
2. 글의 짜임

발단	엄□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화장실 전□ 불이 나가고, 세□대가 막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세면대가 막힌 원인이 머리를 감을 때 빠진 머리카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철□점, 아□트 관□ 사□소에 가 보면서 세면대를 뚫기 위해 노력함. ‘나’는 외숙모 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으나 외숙모에게 도□을 요□하지는 않음.
위기	근심에 찬 동생을 보고 ‘나’가 세면대를 스스로 고치기로 마음먹고, 동□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본 후 자□거 가□에서 멍□ 스□너를 빌림.
절정	‘나’는 멍□ 스□너를 이용하여 세면대를 뚫음.
결말	멍□ 스□너를 잡았던 손을 보며 스스로 문□를 해□한 자신에게 뿌□함을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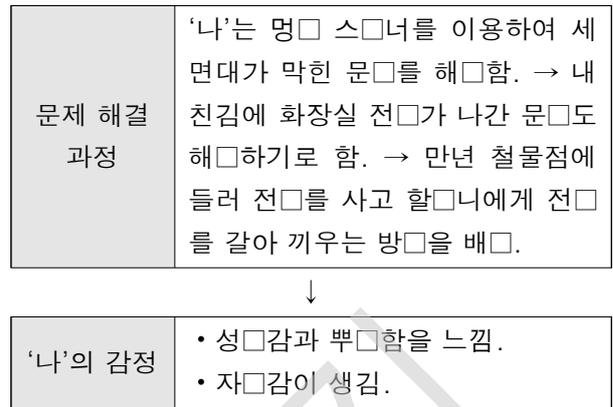
3. 행동과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나’의 성격

‘나’의 행동과 말	→	‘나’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밥 차려 먹기 귀찮아서 온 건데 갑자기 미□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한아를 보며 고개를 슬쩍 내저었다. “아무 일 없어요.” 	→	외숙모에게 집에 생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에서 ‘나’의 어□스러운 성격을 알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면대를 뚫는 방법을 찾기 위해 동□상을 20개쯤 찾아봄. 동□상을 다섯 번쯤 돌려 봐서 작업 순서를 저절로 외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꼼□하고 치□함. 준□성이 철□함. 책□감이 □함.
배수관에서 지저분한 것이 나오고 냄새가 나자 한아에게 나가 있으라고 함.	→	동생을 □기고 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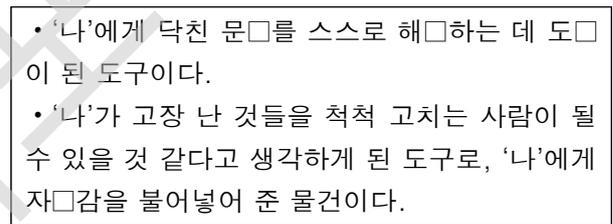
4. 문제 상황을 대하는 '나'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



5. 세면대가 막힌 문제를 해결한 뒤 '나'의 감정



6. '나'에게 '멍키 스패너'의 의미



TEST 2단계

1. 제재 정리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격	ㅅ ㅅ]적, [ㅈ ㅈ]적
시점	ㅇ ㅇ ㅈ] [ㅈ ㅇ ㅈ] 시점
제재	멍키 스페너
주제	ㅎ ㅈ ㅅ] [ㅅ ㅁ ㄷ]가 막히고 ㅈ ㄷ ㅂ]이 나간 [ㅁ ㅈ]를 ㅎ [ㅈ]한 [ㅈ ㅎ]과 이를 통한 [ㅅ ㅈ]
특징	• [ㅇ ㅇ ㅈ] [ㅈ ㅇ ㅈ] 시점으로 인물의 [ㅅ ㄹ] [ㅂ ㅎ]가 세밀하게 드러남. • [ㅁ ㅈ] 상황을 스스로 ㅎ [ㅈ]하 는 과정에서 인물의 [ㅅ ㅈ]이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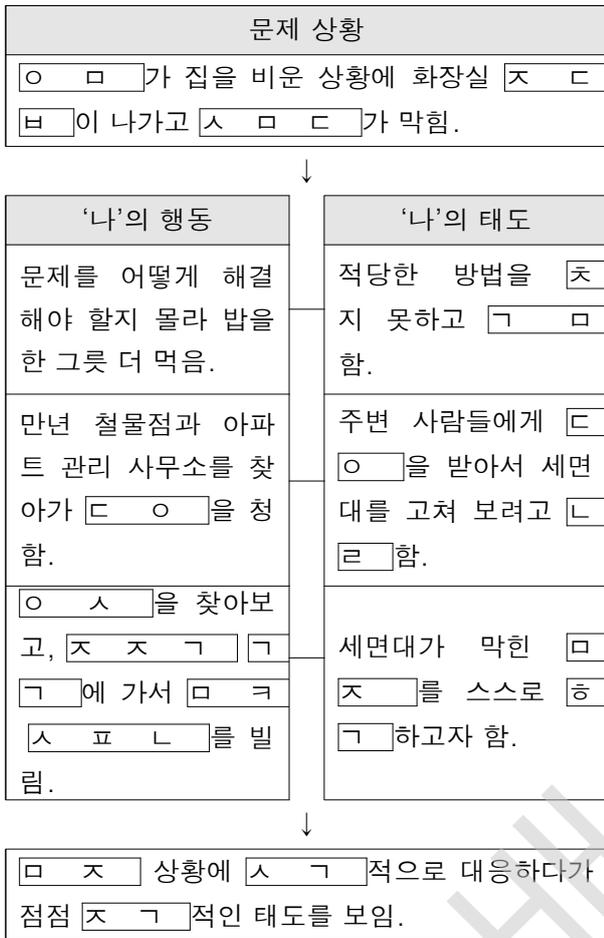
2. 글의 짜임

발단	[ㅇ ㅁ]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화장실 ㅈ ㄷ ㅂ]이 나가고, [ㅅ ㅁ ㄷ] 가 막힘.
전개	• '나'는 세면대가 막힌 원인이 머리를 감을 때 빠진 머리카락 때문이라고 생각 하고 [ㅈ ㅁ ㅈ], [ㅇ 표 ㅌ] [ㅈ ㄹ] [ㅅ ㅁ ㅅ]에 가 보면서 세면대 를 뚫기 위해 노력함. • '나'는 외숙모 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 으나 외숙모에게 [ㄷ ㅇ]을 [ㅇ ㅈ] 하지는 않음.
위기	근심에 찬 동생을 보고 '나'가 세면대를 스스로 고치기로 마음먹고, [ㄷ ㅇ ㅅ] 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본 후 [ㅈ ㅈ ㅈ] [ㅈ ㅈ]에서 [ㅁ ㅋ] [ㅅ 표 ㄴ] 를 빌림.
절정	'나'는 [ㅁ ㅋ] [ㅅ 표 ㄴ]를 이용하 여 세면대를 뚫음.
결말	[ㅁ ㅋ] [ㅅ 표 ㄴ]를 잡았던 손을 보며 스스로 [ㅁ ㅈ]를 ㅎ [ㅈ]한 자 신에게 [ㅂ ㄷ ㅎ]을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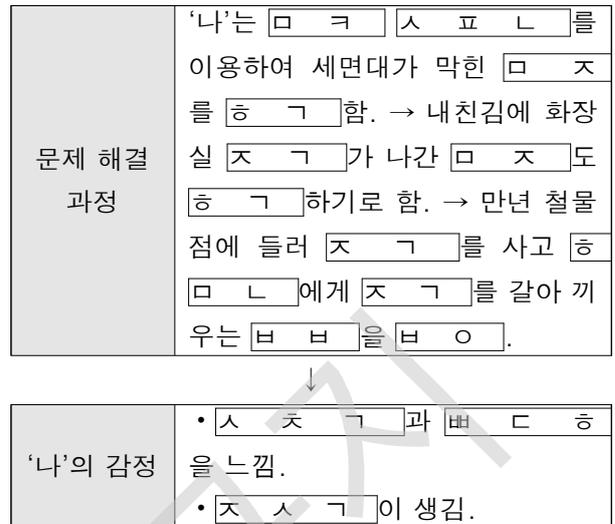
3. 행동과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나'의 성격

'나'의 행동과 말	'나'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 차려 먹기 귀찮아서 온 건데 갑자기 [ㅁ ㅇ]한 마음이 들었다. • '나'는 한아를 보며 고개를 슬쩍 내저었다. • "아무 일 없어요." 	<p>외숙모에게 집에 생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에서 '나'의 [ㅇ ㄹ ㅅ] [ㄹ ㅇ] 성격을 알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면대를 뚫는 방법을 찾기 위해 [ㄷ ㅇ ㅅ]을 20개쯤 찾아봄. • [ㄷ ㅇ ㅅ]을 다섯 번쯤 돌려 봐서 작업 순서를 저절로 외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ㅈ ㅈ]하고 [ㅈ ㅁ]함. • [ㅈ ㅂ ㅅ]이 [ㅈ ㅈ]함. • [ㅈ ㅇ ㅈ]이 [ㅈ]함.
<p>배수관에서 지지분한 것이 나오고 냄새가 나자 한아에게 나가 있으라고 함.</p>	<p>동생을 [ㅈ ㅈ]고 [ㅂ ㄹ]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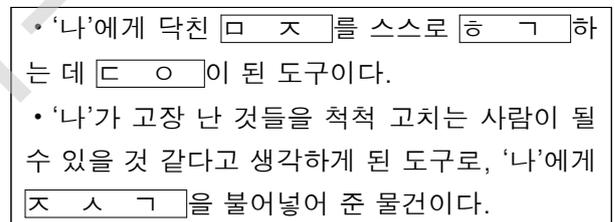
4. 문제 상황을 대하는 '나'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



5. 세면대가 막힌 문제를 해결한 뒤 '나'의 감정



6. '나'에게 '멍키 스페너'의 의미



O / X 문제

【1~8】 「멍키 스페너」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1. 이 작품의 시점은 '나'가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O / X)

2. '나'와 한아는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 물이 빠지지 않는 설상가상의 상황에 처했다. (O / X)

3. '나'는 세면대가 막힌 원인을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로 세면대가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O / X)

4. '나'는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년 철물점, 아파트 관리 사무소, 자전거 가게를 찾아간다. (O / X)

5. '나'는 문제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점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O / X)

1. O 2. O 3. X 4. O 5. O

중2-1
국어
미래엔(신)

2027 중2-1 국어 미래엔(신) | 1(2) 명키 스페너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팔자 늘어졌구나 싶었다. 엄마 없이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니! 다저녁때까지 교복도 안 벗고 소파에서 뒹굴대는 건 평소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게다가 나한테는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도 있다. 급한 일 있을 때 쓰라고 엄마가 주고 간 돈이다.

나중에 돈 생기면 사야지 했던 것들이 줄줄이 눈앞을 지나갔다. 앵두 빗갈 립밤과 고양이 핸드폰 케이스와 편의점 과자 몇 개. 뭔가 특이하고 맛있겠다 싶은 과자들은 값이 전부 3천 원이 넘었다. 하지만 이제 가격표 따위 거들떠보지 않아도 된다. 눈 돌아가게 비싼 과자를 아침저녁으로 사 먹어도 돈이 남을 판이다.

“언니, 배고파.”

옆구리에 흑이 하나 붙어 있기는 했다. 나는 얼른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여덟 살쯤 됐으면 밥 정도는 혼자 차려 먹을 수 있는 나이다. 나는 그 나이 때 내 밥을 알아서 차려 먹은 건 물론이고 우는 아기한테 분유를 타 먹일 줄도 알았다. 내 아기도 아닌데 내가 우유병 물리고 놀아 주고 다 했다. 그런데 그때 그 갓난쟁이 김한아는 아직도 아기 취급 받으며 세상 편하게 살고 있다.

“한아 가스 불 못 켜게 하고, 칼 못 만지게 하고, 유리컵도 절대 주지 말고.”

엄마는 현관문 나서는 순간까지 한아 걱정을 했다. 냉장고 안에도 한아가 좋아하는 밀반찬들을 짹 짹 채워 두었다. 다행히 한아는 밥투정이 없는 편이라 밀반찬에다 달걀이나 하나씩 부쳐 주면 군소리 없이 밥을 잘 먹긴 한다. 한아 발소리가 저만큼 멀어졌다. 내가 진짜로 자는 줄 알았나 보다.

졸졸졸졸졸.

오줌 누는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어서 그런지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똥 누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다행이야. 애써 느긋한 척하는데 한아가 끄응, 힘주는 소리를 냈다. 그래도 문 닫고 싸라는 말을 차마 못 했

다. 그저께 화장실 전등불이 나갔기 때문이다. 엄마가 없는 줄 어떻게 알고 그날 밤 귀신같이 불이 나갔다. 화장실에는 창문이 없어서 낮에도 불을 안 켜면 뭐가 뭔지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니 어찌겠나. 사실은 나도 화장실 문을 반쯤 열어 두고 불일을 보는 중이다.

“언니이이이.”

한아가 또 나를 불렀다. 뒤를 길게 늘어 부른다는 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뜻이다. 계속 자는 척할까 하다 그냥 일어났다. 슬슬 배가 고파왔다.

“왜?”

화장실 앞에 서서 물었다. 한아가 세면대 앞에서 손을 어정쩡하게 들고 나를 돌아봤다. 세면대 안에는 비누 거품 똥똥 뜬 물이 넘칠 듯 차 있었다.

“물이 안 내려가.”

나는 한아한테 비키라 하고 뿌연 물속에 손을 담가 배수구 마개를 찾았다. 동전같이 생긴 마개를 누르면 배수구 구멍으로 마개가 쏙 들어가 물이 안 빠지게 막아 주고, 다시 한번 누르면 도로 튀어 올라와 벌어진 틈새로 물이 빠지게 된다. 한아가 손을 씻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개를 누른 모양이다.

“언니가 저번에 알려 줬지?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물이…….”

물이 내려가지 않았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마개가 구멍 안으로 쏙 들어간 상태였다. 뭐지? 그럼 방금 전에 열려 있었다는 말인가? 마개를 다시 눌렀다. 마개가 위로 올라오면서 손끝으로 틈새가 만져졌다. 그런데 물이 조금도 내려가지 않았다.

“나도 해 봤어. 근데 안 돼.”

한아가 이마를 찡그렸다. 나는 한아가 손을 마저 헹굴 수 있게 샤워기 물을 틀었다. 한아가 화장실 바닥에 찡그려 앉아 손을 비벼 씻었다. 불이 안 들어오는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는 세면대라니! 일이 점점 더 꼬이고 있었다. 엄마가 집에 오려면 아직 4일이나 남았다.

일단 저녁밥을 먹기로 했다. 냉장고에서 감자조림과 시금치무침을 꺼내고 달걀을 두 개 부쳤다. 구운 김도 꺼내 포장지를 뜯었다. 한아가 식탁을 쓱 훑어보더니 장조림 담긴 통을 들고 왔다. 반찬 아껴 먹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할까 하다가 말았다.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전등불이야 원래 오래 쓰면 저절로 나가고 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세면대는 갑자기 왜 저럴까 생각해 봤

다. 요즘 들어 세면대 물 내려가는 속도가 좀 느리다 싶긴 했지만 이렇게 안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아가 반찬 집으려고 몸을 숙일 때마다 머리카락이 앞으로 쏟아졌다. 고무줄을 가져와 뒤통수 위에도 동그랗게 말아 묶어 주었다. 그리고 보니 어제오늘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았다. 내 머리도 감고 한아 머리도 감겼다. 화장실 문을 열어 놓고 샤워까지 하기는 좀 그래서 급한 대로 세면대에다 몸을 숙이고 샤워기 물을 틀어 머리만 대충 감고 지나갔다.

한아는 머리가 제법 길다. 엄마가 몇 번이나 잘라 주려고 하는 걸 내가 못 그러게 막았다. 한아도 이제 학교에 들어갔으니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된 셈이고, 그렇다면 뭐 한 가지라도 사람들 눈에 띄는 편이 낫다. 안 그러면 애들 속에 묻혀 이도 저도 아닌 인생 시작인데, 한아까지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한아의 긴 머리를 묶거나 땃거나 여기저기 핀을 꽂거나 알록달록 화려한 머리띠를 돌려 주고 있다. 애는 집에서 엄청 관리하는 애라고 표시를 해 두는 것이다.

사실은 나도 머리가 길다. 그렇다고 한아처럼 남들 눈에 좀 띄어 보려는 수작은 절대 아니다. 우리 반만 해도 머리 짧은 애보다 긴 애가 훨씬 많으니까 애당초 이런 걸로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없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큰맘 먹고 머리를 짧게 자른 적이 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어떤 일에도 결코 호들갑 떨지 않고 상대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말을 내뱉는 머리 짧은 여자애가 있었다.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해였고, 나는 그런 애로 아이들 기억 속에 남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데 머리를 자르고 학교에 간 날, 아이들의 반응이 내 예상과 좀 달랐다. 표현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지만 결국은 다 같은 얘기였다.

“자르지 말지. 너 얼굴 엄청 커 보여.”

애들이 돌아가며 하는 말들이 내 심장을 쿡쿡 찔렀다.

“진짜? 아이 씨, 어떡해. 이렇게 앞머리 내리면 어때? 아직도 커 보여? 쯔름 다시 보라고. 이래도 얼굴 커 보여?”

결국 나는 온갖 호들갑을 다 떨며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고, 그때 이후로 다시는 머리를 멍멍 멍멍 자르지 않았다. 미용실에서 머리끝만 살짝 다듬고 집에 오면 엄마가 고만큼 자를 거 왜 비싼 돈 들여 미용실에 가느냐고 야단을 했지만 그 정도 구박에 흔들릴 내가 아니었다. 원래 호되게 겪은 일에서 얻은 교훈은 뼈에 새겨지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 자매는 둘 다 치렁치렁한 머리채를 휘날리며 사는 중이고, 엄마는 일 끝나고 집에 와 쉬다가도

두꺼운 테이프를 손바닥에 뒤집어 감고 방바닥이며 거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들을 짹짹 짹 내곤 했다. 이노무 짹, 가시나들 짹, 머리를 다 짹짹, 밀어 버릴라 짹짹.

아무튼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는 이유는 우리 자매가 이토록 긴 머리를 세면대에 거꾸로 쏟아 놓고 샴푸를 짹짹 짜서 구석구석 비벼 감고 행구는 동안 배수구 구멍으로 빠져나간 머리카락들 때문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밥을 한 그릇 다 먹었는데도 적당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밥을 한 그릇 더 먹어 보기로 했다.

학교 갔다 집에 오는 길에 철물점에 들렀다. 만년 철물점. 볼 때마다 가게 이름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년만년 철물점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뭘 그렇게까지 굳센 의지로 장사를 하나 싶었다.

“할머니.”

가게 안으로 들어가 주인 할머니를 불렀다. 만년 철물점은 경빈이 할머니네 가게다. 경빈이는 한아 어린이 집 친구인데 한동안 할머니랑 살다가 학교 들어가면서 다시 엄마 집으로 갔다. 그 뒤로 할머니는 한아를 볼 때마다 경빈이 안 보고 싶냐고 물으면서 사탕도 주고 요구르트도 준다.

“뭐 주라?”

할머니가 구석에서 밥을 먹다 말고 나왔다. 점심을 먹기에는 늦은 시간이었다.

“아뇨. 뭐 사러 온 건 아니고…….”

교복 윗도리 주머니에 두 손을 밀어 넣었다. 뭘 사러 온 게 아니라서 괜히 눈치가 보였다.

“집에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서요.”

“물이 쭈쭈쭈 내려가? 아니면 아예 안 내려가?”

“아예 안 내려가요.”

“그거는 저기다 물어보아야지.”

할머니가 길 건너 가게를 가리켰다. 한성 설비. 맨날 지나다니는 길인데 저런 가게가 있는 줄 처음 알았다. 세면대, 화장실, 싱크대, 막힌 건 뭐든 다 뚫어 주는 데라고 했다. 역시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 나는 엄마가 주고 간 돈을 좀 쓰더라도 세면대를 뚫기로 했다.

“대충 얼마쯤 해요?”

비싸 봤자 얼마나 비싸겠느냐고 험령하게 생각한 것 같다. 코앞에 있는 아파트에 와서 고작 머리카락 좀 빼

주는 일이었다. 그런데 할머니 말을 듣고 뒤로 넘어갈 뻔했다. 한성 설비 사장님은 이것저것 못 고치는 게 없는 기술자라서 어디든 한 번 방문할 때마다 기본 출장비가 5만 원이라고 했다. 아직 출장비를 낸 것도 아닌데 피 같은 돈을 왕창 뜯긴 기분이 들었다. 누굴 호구로 아나? 얼굴을 찌푸리자 할머니가 대뜸 나무라는 소리를 했다.

“그 정도 값도 안 내고 사람을 부르려고? 비싼 물건들은 척척 사면서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 돈은 왜들 그렇게 아까워하는지.”

할머니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다. 돈이 많다면야 5만 원이든 얼마든 순순히 낼 수 있겠지만 내 형편이 그렇지 않음 걸 어떡하나. 전 재산의 절반을 털어 세면대를 뚫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할머니가 가게 밖까지 나를 따라 나왔다.

“그러면 관리 사무소에 한번 가 보든가. 원래 세면대까지는 안 봐 주는데 또 모르지, 말을 잘하면 봐 줄지도.”

나는 한성 설비 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리고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는 한 번도 가 본 적 없다. 가끔 거실 벽에 붙어 있는 스피커로 “관리 사무소에서 알려 드립니다.” 어찌고저찌고하는 방송을 들어서 귀에 익숙하기는 한데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있다!”

혹시나 해서 아파트 입구에 있는 안내판을 훑어보는 중이었다. 이쪽으로 가면 302동, 저쪽으로 가면 305동, 방향을 알려 주는 화살표 모양 안내판에서 관리 사무소 팻말을 찾아냈다. 관리 사무소는 아파트 후문 쪽으로 가라고 돼 있었다.

할머니 말대로 또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원래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듣기 좋은 말 몇 마디로 은근슬쩍 남의 돈을 떼어먹으려 들다니, 한두 푼도 아니고 자그마치 천 냥씩이나!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양심상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엄마도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경우가 좀 다르다. 뻔뻔스럽게 빚을 다 없애 달라는 게 아니라 그저 막힌 세면대를 좀 봐 달라는 거니까 그 정도는 서로 돕고 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관리 사무소가 보이지 않았다. 후문 앞까지 왔는데도 노인정 말고는 다른 건물이 없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둘러봤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계단이 있었다. 노인정 한쪽 벽

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다. 고개를 길게 빼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계단 밑 유리문 위에 붉은 글자가 보였다. 찾았다, 관리 사무소.

문을 밀고 들어가니, 회색 점퍼를 입은 아저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무슨 일로 왔니?”

아저씨가 물었다.

“저희 집에 뭐가 고장 나세요.”

나는 사실대로 얘기할 참이었다. 세면대가요, 어제부터 물이 안 내려가서요.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장 났어? 뭐가?”

사실대로 말을 하되 아주 약간만 가여운 척하려고 했다. 저희 엄마가요, 지금 어디 가서서 집에 저랑 동생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며칠 동안 계속 씻지를 못해서요.

아저씨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몇 동 몇 호인데?”

나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엄마는 나를 붙잡고 여러 번 얘기했다. 집에 오면 보조 걸쇠까지 다 잠그고 있으라고, 누가 와서 벨을 눌러도 문 열어 주지 말라고, “누구세요?” 묻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어디 가서 집에 엄마 없다는 말 절대 하지 말라고.

“집에 어른 안 계셔? 왜 학생이 왔어?”

아저씨가 또 물었다.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세면대를 고치려면 처음 보는 아저씨가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집에는 나와 한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엄마 밖에 계세요. 엄마랑 같이 올게요.”

나는 유리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길을 빙빙 돌아 집으로 갔다. 누가 뒤따라오지 않는지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진짜로 누가 있을까 봐 가슴이 쿵쿵 뛰었다.

외숙모가 전화를 했다. 한아 데리고 집에 와서 저녁 먹으라고 했다. 한아를 흔들어 깨웠다. 방에서 혼자 노는 줄 알았는데 그새 잠이 들었다. 한아는 잘 때 깨워도 칭얼대지 않는다.

버스 두 정거장 거리를 걸어서 갔다. 버스 카드 안에 남은 돈이 간당간당했고 별로 멀지도 않았다. 외숙모는

저번보다 몸이 더 붙어 있었다. 아기 낳을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땠는지 옆에서 다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데 외숙모 배를 보니 와, 장난 아니구나 싶었다. 외숙모는 손발도 통통 붓고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휘유 숨을 몰아쉬었다. 밥 차려 먹기 귀찮아서 온 건데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한아는 김치찌개 안에 있는 콩치를 세 토막이나 먹었다. 밀반찬만 놓고 밥을 먹다가 찌개가 있으니 좋은 모양이었다. 나도 찌개 국물에 밥을 자작자작 비벼 한 그릇을 다 비웠다.

“집에 별일 없니?”

외숙모가 냄비에 남은 김치찌개를 통에 담아 주며 물었다. 한아가 내 얼굴을 올려다봤다. 화장실 불이 안 들어오고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간다는 얘기를 해도 되는지 눈으로 묻고 있었다. 나는 한아를 보며 고개를 슬쩍 내저었다. 우리도 엄마 없이 지내고 있지만 외숙모도 외삼촌 없이 혼자 버티는 중이었다. 엄마랑 외삼촌은 일 때문에 광주까지 트럭을 끌고 내려갔고, 일을 마칠 때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아무 일 없어요.”

“그래. 우리 소풍이도 아빠 올 때까지 잘 있다 나올 거지?”

외숙모가 부른 배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소풍이는 외숙모 뱃속에 있는 아기의 별명이다. 세상에 소풍 오듯이 즐겁게 오라고 외삼촌이 지어 줬다고 했다. 외삼촌은 우리 생일 카드에도 가끔 멋진 말을 써 주곤 한다.

“소풍아, 잘 있어.”

한아가 손으로 외숙모 배를 쓰다듬으며 인사했다.

집에 오다 편의점에 들렀다. 차비를 아꼈으니 과자 한 봉지씩은 사 먹어도 될 것 같았다. 엄마가 주고 간 돈이 아직 그대로 있었다. 이참에 돈을 펄펄 써 봐야지 했는데 막상 돈을 쓰려고 하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 망설여졌다.

“먹고 싶은 거 골라.”

한아가 신이 나서 진열대 쪽으로 뛰어가더니 금방 과자를 한 봉지 들고 왔다. 맨날 먹던 과자였다. 나는 그 과자를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 진열대 위쪽에서 비싼 과자를 골라 한아 손에 쥐여 줬다. 그리고 나도 한 번도 안 먹어 본 과자를 집어 들고 계산대로 가서 만 원짜리를 내밀었다. 우리는 진짜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정도 과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 먹는 애들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토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공원 길이 한산했다. 평소라면 학교 가는 애들로 북적일 시간이었다. 자전거 속도를 좀 늦추고 뒤를 돌아봤다. 한아가 부지런히 페달을 구르며 쫓아오고 있었다.

“거의 다 왔어.”

길 건너에 자전거 가게가 보였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다. 사장님이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넣다 말고 우리한테 알은체를 했다. 우리는 자전거를 다 여기서 샀고, 한아 자전거에 붙어 있던 보조 바퀴도 여기 와서 뺐다. 사장님이 조임쇠를 풀어 양쪽 보조 바퀴 떼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전부 지켜봤다.

내가 찾는 것은 사장님의 공구 상자 안에 있었다. 신기하게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그쪽으로 성큼 성큼 걸어갔다. 그런데 손에 쥐니 생각보다 좀 무거웠다. 할 수 있겠어?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아 문득 오기가 생겼다. 손아귀에 힘을 꽉 주고 사장님을 돌아보며 물었다.

“저, 이거 잠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어젯밤 양치질을 하는데 한아가 칫솔을 입에 문 채 세면대를 계속 힐끔거렸다. 세면대에는 여전히 물이 넘실대고 있었다. 하루 종일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며 물이 빠졌나 들여다봤지만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한아가 나를 빤히 올려다봤다.

“언니, 애 어떡해?”

어두워서 다른 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한아 눈동자가 똑똑히 보였다. 두 눈에 근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했다.

“내일 고칠 거야.”

“누가?”

“언니가.”

“어떻게 고치는지 알아?”

“너 저번에 연필깎이 고장 났을 때 누가 고쳐 줬어?”

내가 고쳐 줬다. 별로 대단치 않은 고장이었다. 연필깎이 뚜껑을 열고 톱니바퀴 사이에 박힌 연필심을 빼낸 뒤 다시 닫으면 되는 일이었다. 한아가 비로소 웃었고, 나는 보란 듯이 양치물을 바닥에 뒹 뱉었다. 그리고 진짜로 생각했다. 한번 해 보지, 뭐. 안 되면 말고.

나는 이불 속에서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을 스무 개쯤 찾아봤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확실해

보이는 방법을 발견했다. 요 정도는 얼추 따라 할 수 있겠다 싶었고, 무엇보다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도구가 하나 필요했다.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도구 이름을 알려 줬다. 멩키 스패너. 나는 그걸 어디서 봤는지 금방 기억해 냈다.

자전거 가게 사장님은 멩키 스패너를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꼬치꼬치 묻더니, 쓰고 나서 바로 가져와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나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가방에 멩키 스패너를 챙겨 넣고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는데 사장님이 우리 자전거 체인에 기름을 조금씩 발라 주었다. 페달을 밟자마자 자전거가 앞으로 쭉쭉 나갔다.

한아한테 세면대 안의 물을 퍼서 바닥에 버리라고 시키고, 나는 장갑을 낀 채 세면대 아래 쭈그리고 앉았다. 동영상에서 본 대로 부드럽게 구부러진 관이 거기 있었다. 비밀 동굴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좀 놀라운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이 집에서 오래 살았고, 그래서 집 구석구석을 다 안다고 생각했다. 집 안에 이런 뜻밖의 공간이 있는 줄은 몰랐다.

“다 했어, 언니.”

세면대가 비었으니 이제 일을 시작할 때다. 작업 순서는 머릿속에 다 있었다. 동영상을 다섯 번쯤 돌려 봤더니 저절로 외워졌다. 일단 구부러진 배수관 양쪽에 조여져 있는 너트를 풀어야 한다. 너트를 꼭 물도록 멩키 스패너의 입 크기를 조절하고 힘주어 왼쪽으로 돌렸다. 한두 번은 좀 뻑뻑하게 돌아갔지만 그 뒤로는 술술 풀렸다. 양쪽 너트가 모두 헐렁해지자 배수관의 구부러진 부분이 통째로 떨어져 나왔다.

“으아악!”

배수관 끝에 검고 축축한 덩어리가 늘어서 있었다. 오래된 늪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 같았다. 냄새도 지독했다.

“한아야, 나가 있어.”

한아가 손가락으로 코를 째진 채 고개를 도리도리했다. 코딱지만 한 게 그래도 의리가 있다.

“그럼 이거 들고 있어. 여기 잘 보이게.”

핸드폰 플래시를 켜 다음 한아 손에 쥐여 주었다. 어두침침하던 세면대 아래가 환해졌다. 나는 숨을 꼭 참고, 철사 옷걸이를 꼬챙이처럼 만들어 배수관 안으로 밀어 넣었다. 물때가 잔뜩 낀 머리카락 뭉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세면대 물이 못 내려가게 막고 있던 범인이었다.

아래쪽 문제는 해결했으니 이제 위쪽을 살펴볼 차례다. 동전처럼 생긴 세면대 마개를 한쪽으로 돌려 빼내자

물 빠지는 구멍 속에도 머리카락들이 잔뜩 걸려 있다. 이노무 가시나들, 머리를 다 밀어 버릴라. 어디선가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한아 머리에 꽂혀 있던 실핀을 하나 빼 달라고 해서 구멍 속 머리카락들을 걷어 냈다. 줄줄이 떨어 나오는 머리카락들을 다 치우고 나니 구멍 저 아래로 타일 바닥이 내려다보였다. 여태 갑갑했던 속이 땡 뚫렸다.

머리카락 뭉치들을 서둘러 비닐에 담고 꼭 묶었다. 순서를 까먹기 전에 마개와 배수관을 되짚어 끼워야 했다. 위쪽 마개를 제자리에 꽂아 반대로 돌리고, 아래쪽 구부러진 관도 원래 모양대로 맞춘 다음 멍키 스패너로 너트를 다시 조이고, 마지막으로 물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

“들어? 튼다?”

한아가 수도꼭지를 잡고 자꾸 물었다. 마음이 조마조마한 듯했다. 사실은 나도 그랬다.

싸아아 물이 쏟아졌다. 세면대에 잠깐 차오르던 물이 마개 틈새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꼬르륵, 꼬르륵.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싹 내려가고 세면대가 텅 비었다.

“별것도 아니네.”

내가 말했다.

“별것도 아니네.”

한아가 내 말을 따라 하며 웃었다.

자전거 가게에 멍키 스패너를 돌려주고 오는 길에 철물점에 들렀다. 할머니가 밥통을 열고 막 밥을 푸고 있었다. 그래도 큰 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이었다.

“전구 하나 주세요. 화장실 전구요.”

나는 내친김에 나머지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할머니가 화장실 등 모양을 물어보더니 진열장에서 전구를 찾아 주었다.

“한아, 밥 먹었어?”

할머니가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꺼내 한아하고 나한테 하나씩 주었다. 나 혼자 오면 절대로 얻어먹을 수 없는 요구르트를 훌쩍이며 할머니한테 전구 가는 법을 물었다. 할머니는 철물점에서 파는 물건들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고, 엄마도 집에 뭐가 잘 안 돌아갈 때마다 여기 와서 할머니한테 묻곤 했다.

“전구 가는 거야 밥하는 것보다 쉽지.”

할머니가 전구를 꺼내 자세히 보여 주며 전등에서 전구를 어떻게 빼내고 어떻게 다시 끼우는지 알려 주었다.

“전등 스위치 먼저 끄고, 장갑도 꼭 끼고.”

엄마는 할머니한테 경빈이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 건강하게 사셔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 지금 생각하니까, 할머니가 여기서 철물점을 오래오래 하면 좋겠다는 말을 빙 돌려서 한 것 같다. 가게 이름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들지만, 만년 철물점이 천년만년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건 나도 찬성이다.

오랜만에 한아 목욕을 시켰다. 구석구석 비누칠도 하고 머리도 감겼다. 머리 위에 불빛이 환했고 샤워기 물도 따듯했다. 한아가 세면대를 손으로 짚고 서서 “아, 좋다.” 했다. 잘 닦아 놓은 세면대가 하얗고 단단하게 반짝였다.

우리는 젖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식탁에 밥을 차렸다. 우리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모조리 다 꺼내 놓았다. 엄마가 있을 때도 토요일 저녁밥은 특별하게 차려 먹었다.

나는 유리컵 두 개에 오렌지주스를 따랐다. 엄마는 한아한테 유리컵 주지 말라고, 깨뜨리면 다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플라스틱 컵만 쓰게 할 수는 없다.

“두 손으로 꼭 쥐어.”

주스는 유리컵에 마셔야 더 맛있고 더 멋있다. 한아도 이 맛과 멋을 누릴 자격이 있다. 우리는 쉼 소리 나게 건배하고 주스를 마셨다.

밤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한아는?”

“자.”

“무슨 일 없지?”

“어.”

“엄마 월요일 밤에 올라갈 거야. 집에 가면 열두 시 넘을지도 몰라.”

“알았어. 근데 엄마, 나 엄마가 준 돈으로 뭐 하나만 사도 돼?”

“뭐?”

“그냥 갖고 싶은 거 있어서. 만 오천 원이야. 너무 비싸?”

“아니야. 사고 싶은 거 사. 밥 잘 챙겨 먹고.”

전화를 끊고 누워서 오른쪽 손바닥을 폈다. 멍키 스페너를 꽉 쥐었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다. 내 손아귀의 힘이 스페너를 통과하면서 몇 배로 커지는 느낌이었다. 스페너를 쥐는 내 손이 단단히 조여져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던 너트를 거뜰히 움직였고, 나는 그런 내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상대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말을 내뱉는 사람은 되지 못했지만, 스페너를 손에 쥐고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까 철물점에 전구 사러 갔을 때 벽에 걸린 스페너들을 봤다. 반짝이는 새 스페너들이 크기별로 나란히 걸려 있었다. 손잡이가 노란색인 것도 있고 초록색인 것도 있었다. 할머니가 한아를 옆에 앉혀 놓고 김에 밥을 싸서 입에 넣어 주는 동안, 나는 스페너와 드라이버와 펜치를 천천히 구경했다.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뭐? 그거는 만 오천 원.”

나는 초록색 손잡이 스페너를 만지작대다가 도로 걸어 두었다.

옆에서 싹싹 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한아는 저녁밥을 먹자마자 잠이 들었다. 나도 잠이 쏟아졌다. 일어나 불을 끄고 다시 누웠다. 우리는 엄마 없는 다섯 번째 밤을 보내는 중이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잘했어, 김한경.

나는 눈을 감은 채 혼자 웃었다. 엄마가 오려면 이제 이를 남았다.

- 진형민, 「멍키 스페너」

핵심 정리

목차
수완
배
포
공
지

지문

[앞부분의 줄거리] 소프트웨어 칩이 잘못 삽입되어 생각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갖게 된 휴머노이드 기수 콜리는, 경마장에서 민주의 관리를 받으며 투데이와 훈련을 받는다.

민주가 투데이에게 당근을 먹였다. 아작아작 당근을 씹는 진동이 느껴졌다. 곧이어 음식물을 받아 내기 위한 몸의 미세한 움직임과 다소 빨라진 박동, 거칠어진 숨소리가 울림으로 전해졌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즐거워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좋아하는 간식을 줬으니까.”

민주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투데이가 즐거워하고 있다고 믿었다. 더불어 콜리도 자신의 대답을 꽤 마음에 들어 한다고 생각했다가 곧 그 생각을 지웠다. 콜리가 특이하기는 하지만 감정을 부여할 만한 대상은 아니었다. 콜리의 궁금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소수의 기수 휴머노이드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콜리 딱 한 대만 이런 것인지 궁금했지만 답을 알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정보는 어쩌다 기수 휴머노이드를 만나게 된 민주에게 쉽게 오지 않았다.

콜리는 눈을 감고 투데이의 떨림을 느꼈다. 콜리가 무언가를 깨달았을 거라는 기대는, 민주의 오만이나 무지에서 나온 공상일까.

민주는 그쯤에서 콜리를 내려 주었다. 이만하면 됐으니 그만 방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자, 콜리는 투정도 없이 방으로 향했다.

콜리는 방에 웅크려 앉아 투데이의 등에서 느꼈던 진동을 떠올렸다. 메모리에는 ‘기쁨’이라고 저장해 두었다.

다음 날 콜리는 민주의 말이 사실임을 알았다. 투데이가 빠른 속도로 달릴 때 콜리는 한 번 더 고삐를 놓고 투데이의 등에 손바닥을 얹었다. 당근을 먹었던 순간보다 더 빠르고 강렬한 진동을 만났다. 콜리가 말 등에 앉아 경주를 진행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이 생물도 달리기 위해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분명했다. 투데이가 행복해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콜리는 투데이가 행복하다면 자신도 행복한 거라고 정의 내렸다. 갈기가 물처럼 흐르고, 기쁨의 떨림이 몸을 감쌌다. 투데이의 빠른 박동을 콜리는 오롯이 전달받고 있었다. 투데이, 행복한가요? 그럼 저도 행복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시합 전후로는 민주 대신 콜리가 투데이의 목덜미를 만졌다. 둘의 성적은 점점 좋아졌고 투

데이의 몸값이 점점 뛰어오르던 어느 날, 콜리는 경기 직전 경호원이 보고 있던 경마 방송에서 나오는 해설자의 말을 들었다.

“투데이와 기수의 호흡이 잘 맞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호흡. 콜리가 아는 단어다. 그 지식으로 미루어 보아, 콜리는 숨을 쉬지 않는다. 몸이 공기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무언가를 흡수하고 분해하고, 배출하는 과정은 생명이 가진 특권이었다. 콜리의 몸은 그 어떤 것도 흡수하고, 분해하고, 배출하지 않는다. 콜리는 에너지를 몸에 쌓아 두고, 형태를 전환하고, 소비하기를 반복한다. 그런데 왜 호흡이 맞다고 표현했을까.

“그냥 비유지. 합이 잘 맞는다는 이야기야. 파트너십이 좋다고나 할까.”

민주는 그렇게 대답했다. 콜리는 민주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쩐지 부정하고 싶어졌다. 콜리는 자신이 호흡한다고 믿었다.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었고,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지만 몸이 부풀었다 줄어들었다. 그건 콜리가 마주치는 모든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이었다. 호흡을 하면 몸이 자동으로 움직인다. 콜리도 원치 않지만 몸이 스스로 움직일 때가 있다. 투데이의 등에 앉아 주로를 질주하는 순간. 부푸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때만큼은 누군가의 명령 없이도 투데이의 움직임을 따라 몸이 반동해 위아래로 흔들렸다.

“투데이와 달리는 순간만큼은 저도 호흡하고 있어요. 투데이의 호흡에 맞춰서……. 이것도 비유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그럴 수 있지.”

투데이의 등에 앉아 달릴 때마다 콜리는 숨을 쉬었고, 호흡이 생명의 특권이라면 콜리는 그 순간만큼은 생명이었으며, 생명은 살아 있는 존재라는 뜻이었다. 콜리는 살아 있었다.

콜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자신은 투데이가 달릴 때만큼은 살아 있다. 그렇다면 살아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에게 묻지 못했다. 투데이의 몸값이 5,000만 원 이상을 웃돌기 시작하자 둘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따로 불기 시작해 민주와 만나기 힘들어졌으며 새로운 매니저에게 자신이 살아 있다고 말하면 매니저의 반응은,

“미친 로봇이네.”

대체로 이런 식이었다.

콜리는 민주와 다시 만날 날을 고대했으나 민주와 진득하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오래도록 오지 않았다. 비싼 말과 기수는 이따금씩 트럭을 타고 원정을 떠났고, 투데이는 좁은 트럭에서 식사와 배변을 함께 해결하며 씻지도, 쉬지도 못했다. 콜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목덜미를 쓸어 주는 것뿐이었다. 투데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시간은 점점 줄었고 눈은 언제나 초점이 나가 있었다.

그래도 주로에 선 순간만큼은 달랐다. 콜리는 투데이가 자신과 오랫동안 함께 있어 닳아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투데이도 달릴 때에만 살아 있다. 투데이가 살아 있기 위해서는 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콜리에게 채찍이 쥐어진 건 2개월 후였다. 매니저는 달리면서 투데이의 엉덩이를 채찍질하라고 명령했다. 콜리는 명령에 따랐다. 투데이는 채찍을 맞을 때마다 더 빠르게 달리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투데이의 속은 고요해졌다. 콜리는 납득할 수 없었다. 행복하지 않다니. 투데이는 달려야 살아 있음을 느꼈지만 살아 있는 동안 행복하지 않게 되었다. 콜리는 이 점 역시도 민주에게 물어야 할 목록에 넣었다.

한국 신기록이라는 명예의 타이틀을 달게 된 건 투데이가 시속 100킬로미터를 경신했을 때였다. 투데이의 몸값에는 억이라는 단위가 달렸다. 그렇다고 무언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었다. 좋아하는 당근을 조금 더 자주 먹을 수 있었지만 투데이는 예전처럼 당근을 먹을 때 흥분하지 않았다. 힘내. 조금만 더 가면 돼. 경기 도중 투데이에게 콜리가 속삭였다. 그럴 때마다 투데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아파. 아파. 아파.

콜리의 곁에 민주가 있었더라면 그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 민주는 콜리의 말을 못 들은 척하지 않았을 테니까. 둘을 관리했던 매니저는 투데이가 아파한다는 콜리의 말을 듣고도 듣지 못한 척하거나 시끄러우니 닥치고 있으라고 말했다. 콜리는 매니저의 명령을 따라 소리를 꺾고, 투데이는 그렇게 신기록을 경신한 지 3개월 만에 무너졌다.

[뒷부분의 줄거리] 1등을 유지하던 투데이는 어느 순간부터 2등, 5등, 심지어 9등까지 밀려났다. 그러던 어느 날 콜리는 투데이가 자신의 무게를 힘겨워한다는 것을 알고 경주 도중에 스스로 투데이에서 떨어진다.

- 천선란, 「천 개의 파랑」

핵심 정리



서지정보

저자 김아름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9665-2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6.03.20

가격 3,000원

값 3000 원



9 791137 796652

ISBN 979-11-377-9665-2 (PDF)